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2월

석사학위논문

광주광역시 일부 주민들이
인식하는 제사때 사용하는 나물과
민간요법과의 관계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이 명 희

광주광역시 일부 주민들이
인식하는 제사때 사용하는 나물과
민간요법과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ld Greens
Used for Memorial Services and Folk Remedy
Greens as Perceived by Some People in
Gwangju

2014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의학과

이 명 희

광주광역시 일부 주민들이
인식하는 제사때 사용하는 나물과
민간요법과의 관계

지도교수 박 상 학

이 논문을 대체의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0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대체학과

이 명 희

이명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 경 준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문 경 래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 상 학 (인)

2013년 11월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목 차

| | |
|------------------------------------|-----|
| 그림 목차 | ii |
| 표 목차 | iii |
| ABSTRACT | iv |
| I. 서론 | 1 |
| II. 연구 방법 | 3 |
| A. 연구 대상 | 3 |
| B. 자료수집 | 3 |
| C. 조사변수 | 3 |
| 1.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의 종류 | 3 |
| 2.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 | 4 |
| 3. 제사나물의 민간요법 효과 | 4 |
| D. 자료 분석 | 4 |
| III. 연구 결과 | 5 |
| A. 연구대상자의 특성분포 | 5 |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5 |
| 2.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 7 |
| 3.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 | 9 |
| 4.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에 사용 여부 | 11 |
| 5. 제사나물의 민간요법 효과 | 12 |
| IV. 고찰 | 16 |
| V. 결론 | 22 |
| 참고문헌 | 23 |

그림 목 차

| | |
|---|----|
| 그림 1.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 10 |
| 그림 2.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의 이유 | 10 |
| 그림 3.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나물 | 11 |
| 그림 4.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의 효과 여부 | 13 |

표 목 차

| | |
|-------------------------------------|----|
|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6 |
| 표 2.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 8 |
| 표 3.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 | 9 |
| 표 4. 제사나물의 민간요법의 활용(1) | 14 |
| 표 5. 제사나물의 민간요법의 활용(2)(Cont.) | 15 |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ld Greens Used for Memorial Services and Folk Remedy Greens as Perceived by Some People in Gwangju

Lee, Myung-Hee

Advisor: Prof. Park, Sang-Hag M.D., Ph.D.

Department of Alternative Medicine,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reasons why 19 wild greens are usually used for memorial services and five ingredients are not used for memorial service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ses of the 19 wild greens used for a folk remedy and their effects.

It was discovered that bracken, bellflower root, and spinach are frequently used for memorial services and 60.7% of respondents used more than four kinds of greens for memorial services.

68.7% of respondents said that they used three wild greens in different colors for memorial services.

As for the reason why some greens are not used for memorial services, 13.3% responded that they did not use garlic because of its smell and 14.2% responded that they did not use ginger because of its smell. Powdered red pepper, onions, and green onions were not used

because of tradition.

As for the effect of folk remedy using greens for memorial services, 97.2% used bracken and 24.2% said it had remedy effects. The folk remedy used for bellflower roots were 99.1% and 77.3%. Those for spinach were 97.2% and 27.5%.

A folk remedy using the greens had positive effects on cancer, cardiac disorders, cold, constipation, diabetes, bronchial diseases, hangover and fever.

This study suggests that further studies should overcome the limitations of regions as there may be differences in procedures and food served for memorial services and the effects of the wild greens for folk remedy should be considered based on medical tests.

I. 서론

우리나라의 제사문화는 종교에 따라 격식과 절차가 다르다. 이러한 제사문화는 공통적으로 효를 바탕으로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며, 감사하는 마음과 자손의 번성을 기원하는 의미로 여러 가지 나물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하고 있다.

제사에 올리는 제물(祭物)들은 나물류, 육류, 어류, 과일류 등을 사용하였으며 제물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에서 삼국시대는 소, 양, 돼지를 사용하였고 삼국유사의 가락국기에는 메, 떡, 과, 감주, 제주, 차를 사용하였다. 고려사에는 메, 면, 국, 어, 육, 채, 떡, 과를 제물로 사용하였으며 이때에 나물을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 사례편람에는 메, 면, 국, 어, 육, 적, 포, 해, 숙채, 침채, 떡, 과, 식혜, 청장, 식초 등을 사용하면서 채와 침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¹⁾.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의 종류는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숙주, 박나물, 오이나물, 가지나물, 토란대나물, 호박나물, 고비나물 등이 있다²⁾³⁾. 이와 같은 나물들을 제사에 올리는데 사용하지 않는 양념의 재료가 불교에서 금하는 음식인 오신채와 비슷하며, 오신채에는 마늘, 양파, 파, 부추, 달래, 홍거가 있다. 오신채는 수행자의 품격 유지, 독특한 냄새, 생리적 영향으로 인한 수행의 방해, 하늘과 신선들이 냄새가 싫어 멀리 떠나고 나쁜 귀신들이 함께 한다고 하였고, 몸에 열과 흥분을 발생시킨다고 하였다⁴⁾⁵⁾.

제사에 사용되고 있는 나물들은 의약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 단조롭고 간단한 단일 식품 등을 사용하여 전통적인 방법으로 본초(本草)나 향약(鄉約)에 바탕을 두어 약재가 귀할 때에 질병을 치료하며 건강을 지속시켜 주는 민간요법으로 활용되기도 하였다⁶⁾⁷⁾. 민간요법에 활용되는 나물에 대한 연구를 보면 파뿌리, 생강, 무, 당근, 고사리, 고비, 도라지, 호박나물, 배추, 감잎차, 쑥, 녹두, 민들레, 상추뿌리, 느릅나물, 우엉, 바디나물 등에 단일 식물 혹은 몇 가지 식물을 이용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었다⁸⁾⁹⁾¹⁰⁾.

본 논문에서는 제사에 사용하는 19가지 나물과 오신채를 제사에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과 민간요법의 사용 여부 및 효과에 대한 관계를 연구한다.

II. 연구 방법

A. 연구 대상

본 논문에서는 광주광역시 북구 H 문화센터, 남구 지역 문화센터와 일부 지역 주민 등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을 추출하여 본인이 직접 기입하는 방법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B. 자료수집

본 논문의 취지와 설문 응답에 대하여 선행 교육을 실시한 후 응답자가 직접 설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2013년 10월 07일부터 21일까지 총 260부가 배부되어 그중 240부가 회수 되었으며, 응답이 불충분한 29부를 제외한 211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제사에 사용하는 19가지 나물에 관한 문항과 6가지 식물류 양념 재료 중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에 관한 문항,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의 사용 여부와 효과 여부와 사용 범위에 관한 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C. 조사변수

1.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의 종류

-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무우, 숙주, 콩나물, 참나물, 취나물, 토란대, 고구마대, 배추, 박나물, 호박, 오이, 비름, 가지, 고비, 미나리, 무청

2.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

- 재료 : 마늘, 파, 생강, 부추, 고춧가루, 양파
- 이유 : 이유와 관계없이 사용함, 냄새, 귀신, 전통, 색깔, 기타

3. 제사나물의 민간요법 효과

- 자기기입식 다중 응답으로 작성하게 하여 연구자가 재분류하였다.
(단, 응답하지 않는 자로 인하여 민간요법의 효과 있음과 활용의 비율은 다소 차이가 있다.)

D.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SPSS I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일반적 특성,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의 사용 여부와 효과, 제사나물의 민간요법 효과는 빈도분석을 하여 각각 빈도와 퍼센트를 제시하였고, 본 논문의 통계적 유의성은 $p < 0.05$ 로 정의 하였다.

Ⅲ. 연구 결과

A. 연구대상자의 특성분포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별은 남자 34.6%, 여자 65.4% 이었고, 연령대는 30대 14.2%, 40대 19.4%, 50대 24.6%, 60대 28.0%, 70대 이상 13.7%로 60대가 가장 많았다.

장남 혹은 큰 며느리가 45.5%로 많았고, 제사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45.5%, 직접 참여하지 않은 경우는 31.3%, 참석만 하는 경우는 23.2% 이었다.

제사 주관자의 종교는 무교 및 기타가 38.9%로 가장 많았고, 불교 27.5%, 그리고 개신교, 천주교 순이었다. 응답에 참여한 대상자의 종교를 보면 무교 및 기타는 34.7%, 개신교 30.3%, 천주교와 불교는 17.5%로 같았다.

월수입의 정도는 중위권이 65.4%로 가장 많았고, 하위권 31.3%, 상위권 3.3% 이었다.

학력수준은 대졸 이상이 50.7%, 고졸 33.6%, 중졸 15.6% 이었다.

가족 동거는 부모 및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12.8%, 부부만 사는 경우 42.7%, 자녀 및 손자 기타는 44.5%였다.

주관적 건강 상태는 좋다 73.0%, 나쁘다 27.0% 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n(%)

| 변 수 | 구 분 | 합계(N=211) |
|-----------|--------------|-----------|
| 성별 | 남자 | 73(34.6) |
| | 여자 | 138(65.4) |
| 연령(세) | 30대 | 30(14.2) |
| | 40대 | 41(19.4) |
| | 50대 | 52(24.6) |
| | 60대 | 59(28.0) |
| | 70대 이상 | 29(13.7) |
| 형제중 몇째 | 장남 혹은 큰며느리 | 96(45.5) |
| | 차남 혹은 작은며느리 | 73(34.6) |
| | 셋째 이하 혹은 며느리 | 42(19.9) |
| 제사직접참여여부 | 그렇다 | 96(45.5) |
| | 아니다 | 66(31.3) |
| | 참석만한다 | 49(23.2) |
| 제사주관자의 종교 | 개신교 | 42(19.9) |
| | 천주교 | 29(13.7) |
| | 불교 | 58(27.5) |
| | 무교 및 기타 | 82(38.9) |
| 대상자의 종교 | 개신교 | 64(30.3) |
| | 천주교 | 37(17.5) |
| | 불교 | 37(17.5) |
| | 무교 및 기타 | 73(34.7) |
| 월수입 정도 | 상위권 | 7(3.3) |
| | 중위권 | 138(65.4) |
| | 하위권 | 66(31.3) |
| 학력수준 | 중졸이하 | 33(15.6) |
| | 고졸 | 71(33.6) |
| | 대졸이상 | 107(50.7) |
| 가족동거상태 | 부모, 조부모함께 | 27(12.8) |
| | 부부 | 90(42.7) |
| | 자녀 및 손자, 기타 | 94(44.5) |
| 주관적 건강 | 좋다 | 154(73.0) |
| | 나쁘다 | 57(27.0) |

2.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의 수는 4가지 이상이 60.7%, 3가지 이하가 37.4% 이었고 나물의 삼색 사용 여부에서 사용하는 경우 68.7% 이었으며 사용되는 나물은 고사리 99.5%, 시금치 91.5%, 도라지 90.0%, 숙주 71.6%, 토란대 65.9%, 무 65.4%, 콩나물 53.6%, 고구마대 51.2%, 취나물 37.9%, 배추 28.9%, 가지 28.9%, 호박나물 23.7%, 참나물 16.6%, 오이 16.6%, 미나리 11.8%, 무청 8.1%, 박나물 5.2%, 비름 2.8%, 고비 3.3% 순이었다(표 2).

표 2.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N=211(%)

| 변 수 | 사용 | 사용안함 |
|------------|-----------|-----------|
| 고사리 | 210(99.5) | 1(0.5) |
| 시금치 | 193(91.5) | 18(8.5) |
| 도라지 | 190(90.0) | 21(10.0) |
| 숙주 | 151(71.6) | 60(28.4) |
| 토란대 | 139(65.9) | 72(34.1) |
| 무우 | 138(65.4) | 73(34.6) |
| 콩나물 | 113(53.6) | 98(46.4) |
| 고구마대 | 108(51.2) | 103(48.8) |
| 취나물 | 80(37.9) | 130(61.6) |
| 배추 | 61(28.9) | 150(71.1) |
| 가지 | 61(28.9) | 149(70.6) |
| 호박나물 | 50(23.7) | 159(75.4) |
| 참나물 | 35(16.6) | 176(83.4) |
| 오이 | 35(16.6) | 176(83.4) |
| 미나리 | 25(11.8) | 186(88.2) |
| 무청 | 17(8.1) | 194(91.9) |
| 박나물 | 11(5.2) | 200(94.8) |
| 고비 | 7(3.3) | 204(96.7) |
| 비름 | 6(2.8) | 205(97.2) |
| 제사나물 수 | 3가지이하 | 79(37.4) |
| | 4가지이상 | 128(60.7) |
| | 가지수와 상관없음 | 4(1.9) |
| 나물의 삼색사용여부 | 예 | 145(68.7) |
| | 아니오 | 66(31.3) |

3.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를 예외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 70.6%, 부추 65.4%, 양파 62.6%, 마늘 53.1%, 생강 47.4%, 고춧가루 17.1% 이었으며 생강 14.2%, 마늘 13.3%, 과 5.7%, 양파 3.8%, 부추 2.8%, 고춧가루 1.4%는 냄새 때문에 제사의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귀신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고춧가루 11.8%, 마늘 4.7%, 생강 1.9%, 과 1.4%, 양파 1.4%, 부추 0.9% 이었다.

전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고춧가루 14.7%, 마늘 10.0%, 생강 10.0%, 부추 9.0%, 양파 8.5%, 과 6.6% 이었으며 색깔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고춧가루 11.8% 이었다(표 3)(그림 1)(그림 2).

표 3.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

단위=n(%)

| 변 수 | 사용함 | 냄새 | 귀신 | 전통 | 색깔 | 기타 |
|------|-----------|----------|----------|----------|----------|----------|
| 과 | 149(70.6) | 12(5.7) | 3(1.4) | 14(6.6) | 0(0.0) | 33(15.6) |
| 부추 | 138(65.4) | 6(2.8) | 2(0.9) | 19(9.0) | 0(0.0) | 46(21.8) |
| 양파 | 132(62.6) | 8(3.8) | 3(1.4) | 18(8.5) | 0(0.0) | 50(23.7) |
| 마늘 | 112(53.1) | 28(13.3) | 10(4.7) | 21(10.0) | 0(0.0) | 40(18.9) |
| 생강 | 100(47.4) | 30(14.2) | 4(1.9) | 21(10.0) | 0(0.0) | 56(26.5) |
| 고춧가루 | 36(17.1) | 3(1.4) | 25(11.8) | 31(14.7) | 25(11.8) | 91(43.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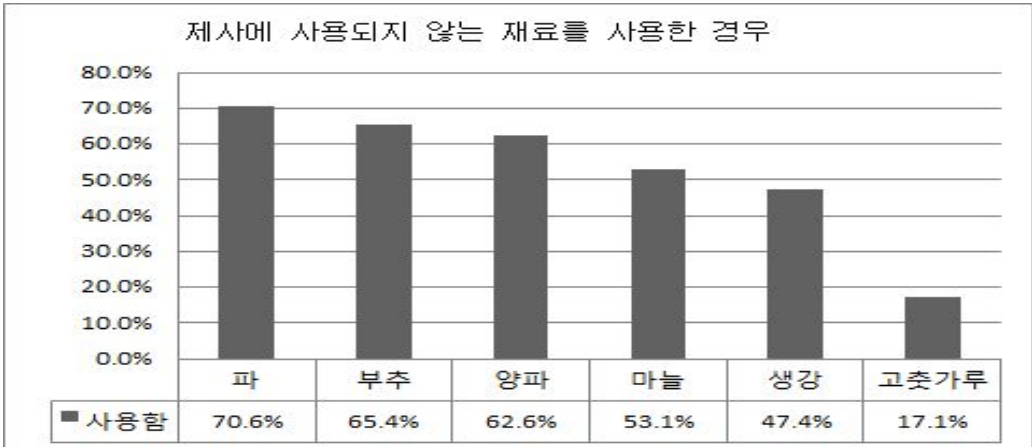


그림 1.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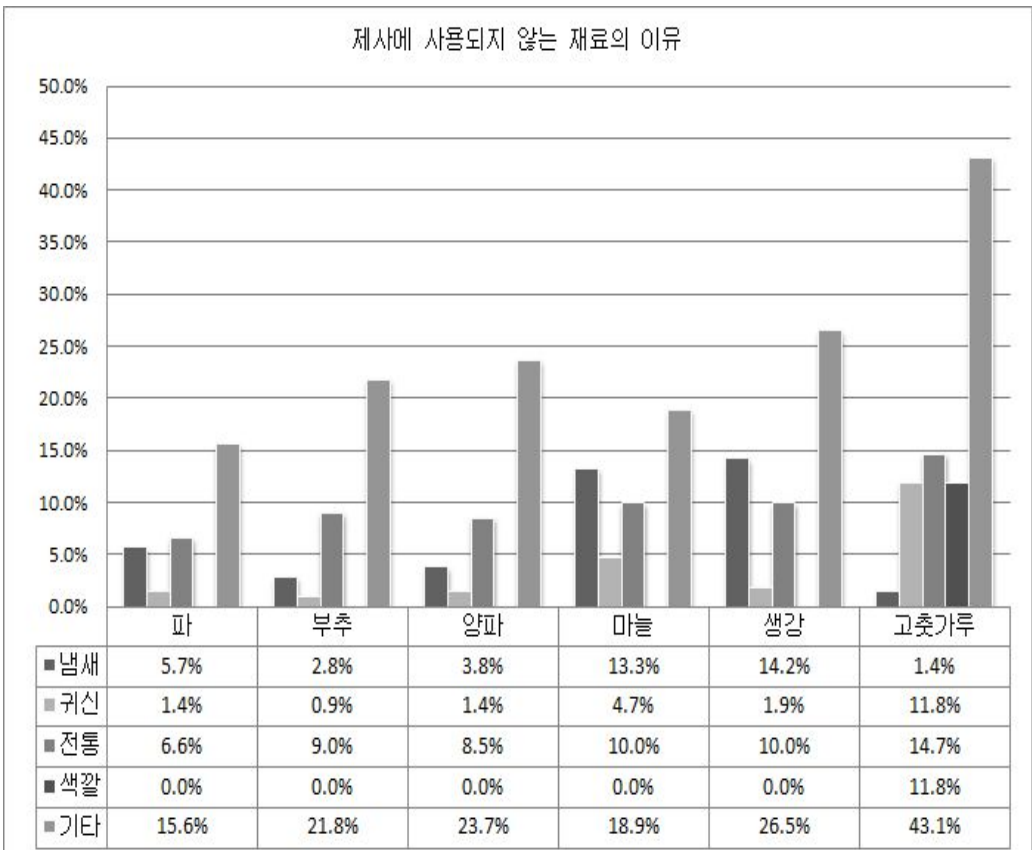


그림 2.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의 이유

4.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에 사용 여부

제사나물이 민간요법으로 사용되는 경우 무우는 응답자의 99.5%가 응답하였으며, 도라지 99.1%, 가지 99.1%, 미나리 98.6%, 콩나물 97.2%, 시금치 97.2%, 고사리 97.2%, 고구마대 96.2%, 호박나물 94.3%, 오이 94.3%, 숙주 92.9%, 무청 91.9%, 토란대 91.5%, 배추 88.2%, 취나물 58.8%, 참나물 33.6%, 박나물 16.1%, 고비 14.7% 순이었다(그림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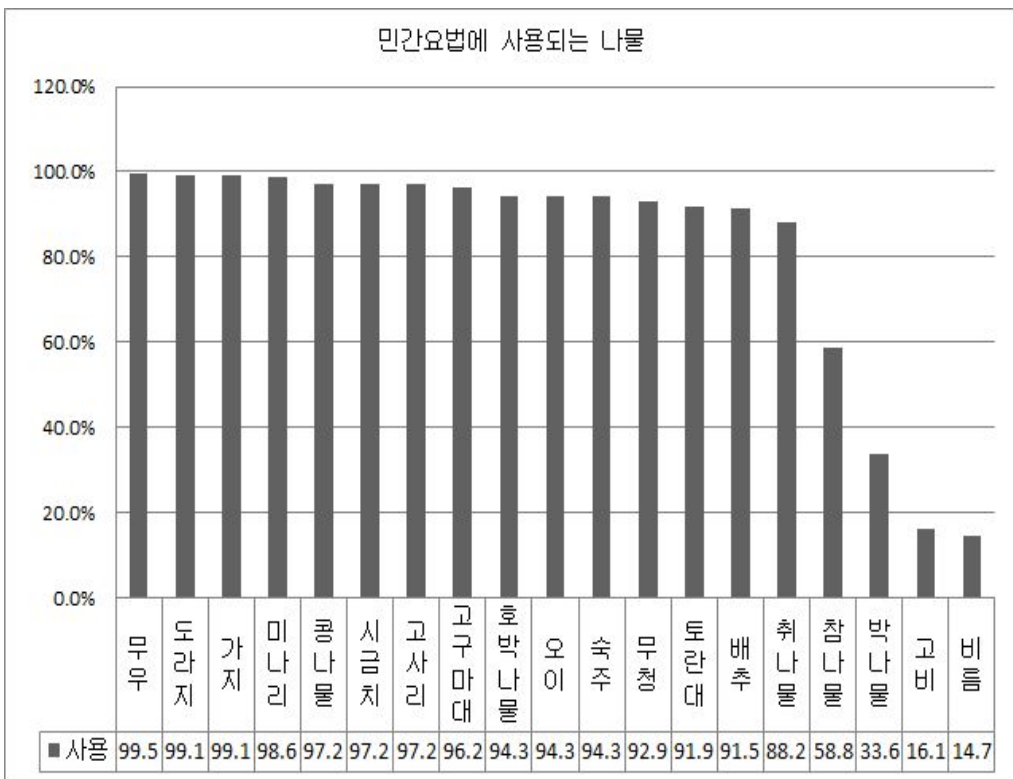


그림 3.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에 사용되는 나물

5. 제사나물의 민간요법 효과

제사나물에 사용된 도라지가 민간요법에 활용되는 효과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77.6%, 감기에 70.6%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다.

무우를 사용하는 경우 응답자의 49.3%가 효과 있다고 하였으며, 소화 22.7%, 감기 19.9%이었으며, 콩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0.8%가 효과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감기 5.2%, 성장 1.9%, 숙취해소 26.1%이었다.

미나리는 39.3%가 효과 있다고 하였으며, 간 관련 63.2%, 변비 2.3%, 감기 1.0%, 당뇨 0.5% 이었고, 무청을 사용하는 경우 34.1%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비 12.8%, 감기 10.9% 해독 1.9%, 해열 1.5%이었으며, 호박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30.3%가 효과 있다고 하였으며, 부종 18.0%, 간 관련 2.8%, 감기 2.4%이었다.

가지를 사용하는 경우 응답자의 29.9%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고, 항암 7.1%, 간 관련 5.2%, 피부미용 3.3%, 심혈관 1.5%, 소화 1.0%이었으며, 시금치는 27.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간 관련 3.8%, 감기 6.6%, 골다공증 5.2%, 고사리가 민간요법에 활용되어 효과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24.2%, 응답자중 간과 변비에 직접 활용한 경우는 간 5.2%, 변비 7.5%이었다.

고구마대는 24.2% 효과가 있다고 응답 하였으며, 변비 10.4%, 감기 1.9%, 요통 1.4%, 오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21.8%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부종 6.2%, 피부미용 4.8%, 감기 1.9%, 숙취해소 0.5%이었다.

숙주를 사용하는 경우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5%이었고, 해독 8.1%, 기관지 2.8%이었으며, 토란대를 사용하는 경우 17.5%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비 4.3%, 면역력강화 1.9%, 취나물이 민간요법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7.1%, 변비 2.9%, 감기 1.9%, 콜레스테롤 감소 1.9%이었다.

배추를 사용하는 경우 16.6%가 효과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변비 4.7%, 감기 1.5%이었으며, 참나물은 응답자의 10.9%가 효과 있다고 하였으며, 안구건조증 2.0%, 감기 1.0%, 변비 0.5%이었다.

박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2.4%가 당뇨, 소화 1.4%, 신경통과 기관지 각 0.5%이었으며, 고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4.3%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신경통 1.5%, 해열 0.5%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응답자의 2.8%가 효과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항암 1.0%, 관절 0.5%이었다(그림 4)(표 4)(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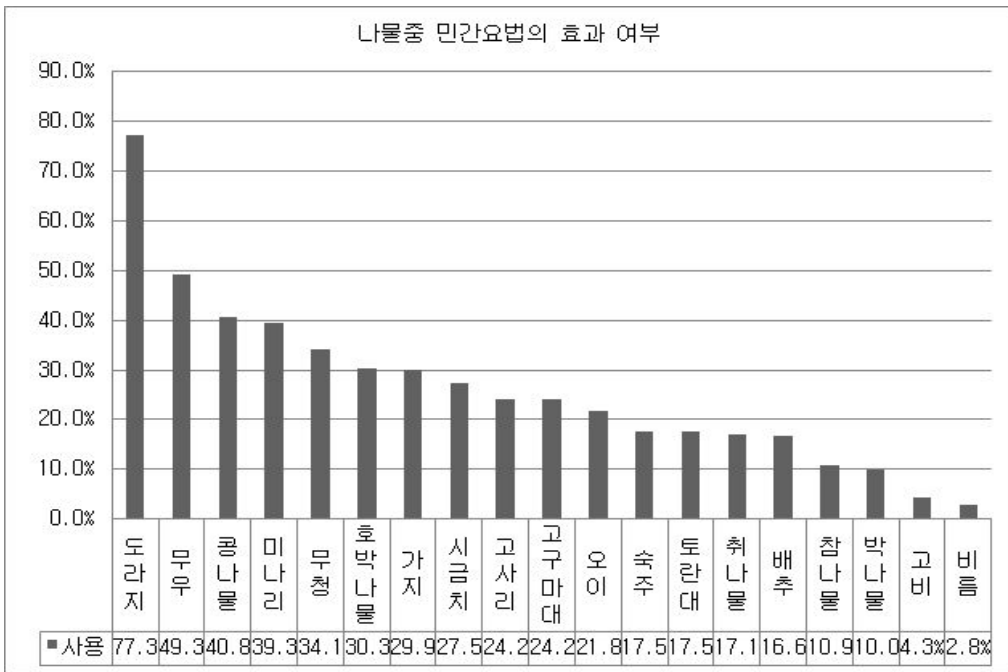


그림 4.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의 효과 여부

표 4. 제사나물의 민간요법의 활용(1)

단위=n(%)

| 민간요법사용효과 | 가지 | 고구마대 | 고비 | 고사리 | 도라지 | 무우 | 무청 | 미나리 | 박 | 배추 |
|----------|---------|----------|--------|---------|-----------|----------|----------|----------|--------|--------|
| 항암 | 15(7.1) | - | - | - | - | - | - | - | - | - |
| 간관련 | 9(5.2) | - | - | 11(5.2) | - | - | - | 67(63.2) | - | - |
| 피부미용 | 7(3.3) | - | - | - | - | - | - | - | - | - |
| 심혈관 | 5(1.5) | - | - | - | - | - | - | - | - | - |
| 소화 | 2(1.0) | - | - | - | - | 48(22.7) | - | - | 3(1.4) | - |
| 변비 | - | 22(10.4) | - | 16(7.5) | - | - | 27(12.8) | 5(2.3) | - | 6(4.7) |
| 감기 | - | 4(1.9) | - | - | 149(70.6) | 42(19.9) | 23(10.9) | 2(1.0) | - | 3(1.5) |
| 요통 | - | 3(1.4) | - | - | - | - | - | - | - | - |
| 신경통 | - | - | 3(1.5) | - | - | - | - | - | 1(0.5) | - |
| 해열 | - | - | 1(0.5) | - | - | - | 3(1.5) | - | - | - |
| 해독 | - | - | - | - | - | - | 4(1.9) | - | - | - |
| 당뇨 | - | - | - | - | - | - | - | 1(0.5) | 5(2.4) | - |
| 기관지 | - | - | - | - | - | - | - | - | 1(0.5) | - |

표 5. 제사나물의 민간요법의 활용(2)(Cont.)

단위=n(%)

| 민간요법사용효과 | 비름나물 | 숙주 | 시금치 | 오이 | 참나물 | 취나물 | 콩나물 | 토란대 | 호박 |
|----------|--------|---------|---------|---------|--------|--------|----------|--------|----------|
| 항암 | 2(1.0) | - | - | - | - | - | - | - | - |
| 간관련 | - | - | 7(3.8) | - | - | - | - | - | 6(2.8) |
| 피부미용 | - | - | - | 10(4.8) | - | - | - | - | - |
| 면역력강화 | - | - | - | - | - | - | - | 3(1.9) | - |
| 변비 | - | - | - | - | 1(0.5) | 6(2.9) | - | 9(4.3) | - |
| 감기 | - | - | 14(6.6) | 4(1.9) | 2(1.0) | 4(1.9) | 11(5.2) | - | 5(2.4) |
| 안구건조증 | - | - | - | - | 4(2.0) | - | - | - | - |
| 콜레스테롤감소 | - | - | - | - | - | 2(0.9) | - | - | - |
| 성장 | - | - | - | - | - | - | 3(1.9) | - | - |
| 해독 | - | 17(8.1) | - | - | - | - | - | - | - |
| 숙취해소 | - | - | - | 1(0.5) | - | - | 55(26.1) | - | - |
| 기관지(가래) | - | 6(2.8) | - | - | - | - | - | - | - |
| 관절 | 1(0.5) | - | - | - | - | - | - | - | - |
| 골다공증 | - | - | 11(5.2) | - | - | - | - | - | - |
| 부종 | - | - | - | 13(6.2) | - | - | - | - | 38(18.0) |

IV. 고찰

제사의 역사는 천지신명을 비롯한 신령이나 죽은 이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으로서 중국에서는 이미 요(堯), 순(舜)시대에 천신(天神), 지기(地祇), 5악(嶽), 4독(瀆)을 제사한 기록이 있고, 조상 숭배가 크게 성행하여 조상에 대한 제례가 하(夏), 은(殷) 시대를 거쳐 주대(周代)에 확고하게 갖추어졌다.

우리 민족은 아득한 고대로부터 하늘을 공경해 제천 의식을 거행하였으며, 농경(農耕)에 종사하게 된 뒤로는 우순풍조(雨順風調)와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의식이 성행하게 되었다.

국가 형태가 완비된 뒤로는 사직(社稷)과 종묘(宗廟), 그리고 원구(園丘)·방택(方澤)·농업(先農壇)·잠업(先蠶壇) 등 국가 경영과 관련이 있는 제례가 갖추어졌고 조상 숭배 사상의 보편화와 함께 가정의 제례도 규격을 이루게 되었다¹¹⁾¹²⁾.

제사에 올리는 나물은 기본적으로 흰색, 녹색, 갈색을 가지는 세 가지 나물을 삼색나물이라 하며 흰색나물의 흰색은 도라지나물, 숙주나물, 무나물 등 뿌리채소로 과거의 조상을 상징하며, 녹색으로 시금치, 오이, 풋배추, 호박 등 잎채소는 미래 후손을 뜻하며, 갈색으로 사용된 줄기채소인 고사리, 표고 등은 현재 우리를 의미 한다¹³⁾¹⁴⁾. 자손들이 조상의 제사에 삼색 나물을 제물로 놓는 것은 땅속에서 뿌리를 내려 땅위의 성장을 빨리 하여 높은 직위의 가문과 후손의 번창을 소원하는 기복적이었다³⁾.

본 논문에서는 제사 나물을 무칠 때 사용하지 않는 양념의 사용 여부 및 사용하지 않는 이유, 제사에 사용되는 19가지 나물과 민간요법의 사용 여부 및 효과에 대한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제사 나물을 무칠 때는 파, 마늘, 양파, 생강, 고춧가루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귀신 즉 조상신을 쫓기 때문이다. 귀신은 자극이 매우 강한 것을 싫어한다고 믿고 있는데 맵고, 시고, 짠맛, 그리고 숨이 막힐 정도의 악취 등이다. 고추는 색깔이 붉을 뿐만 아니라 그 맛도 맵다. 붉은색도, 매운맛도

귀신들이 싫어하는 것들이다¹⁵⁾. 빨강은 전통적으로 재앙과 악귀를 막는 주술적으로 상징되었다.

마늘의 경우 단군신화에서 보듯이 곰을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약초로 인식해왔다. 마늘이 풍기는 독한 냄새를 조상신이 싫어해서이기도 하게지만, 그보다는 음욕(淫慾)의 상징인 마늘에 대한 인식이 조상을 모시는 제사상에 작용한 결과라 할 것이다¹⁶⁾.

본 논문에서는 제사에서 주로 쓰는 나물 종류 중 고사리 이용률이 99.5%, 가장 높고 도라지 90.0%, 시금치 91.5%, 숙주 71.6%, 콩나물 53.6% 순서 이었고 경기지역은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시금치, 경북지역은 고사리, 콩나물, 도라지, 시금치, 무우의 순서로 사용되었으며 동해안 지역에서는 콩나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숙주, 미나리 순서로 사용되었고 도시, 농촌, 산간, 해안 모든 지역에서 고사리가 많이 사용되었으며 콩나물은 산간과 해안지역에서 주로 사용되었다³⁾.

제사에 사용하는 나물 중 고사리의 생약명은 궤근(蕨根), 궤기근(蕨其根), 고사리근(高沙利根)이라고도 부르며 여러해살이의 양치식물로서 뿌리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며 함유성분은 아미노산 종류인 아스파라긴(Asparagine), 글루타믹산(Glutamic acid), 플라보노이드(Flavonoid) 등이 함유되어 익히지 않은 고사리에는 티아미나아제(thiaminase)가 들어 있어 비타민B1을 분해하여 각기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해열과 이뇨의 효능 있다하여 열이 나는 증세와 설사, 황달, 대하증 등의 작용을 한다¹⁷⁾. 민간요법으로 야뇨증에 고사리 다린 물을 한 번에 반잔씩 하루에 세 번 식전에 1주일간 복용하며¹⁸⁾ 치질에 고사리 전초나 뿌리를 달인 뜨거운 김을 쏘인다¹⁹⁾.

도라지의 생약명은 길경(桔梗), 백약(白藥), 경초(梗草), 경(苦梗)이라 하며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하며 감기, 해열에 유효하며, 함유성분 뿌리줄기에 사포닌 일종인 플라티코딘(Platycodin)과 플라티코디게닌(Platycodigenin)이 함유되어 천식, 해열, 거담, 진해, 부종, 배농, 폐결핵등에 작용하여²⁰⁾²¹⁾²²⁾ 사포닌이 잠재적으로 항암 및 항비만 효과를 함유한다고 하였다²³⁾. 도라지 추출물이 차로 이용 되었을 때 초기 감기에 대한 면역력 상승효과가 있으며

감기예방의 민간요법으로 유의하게 활용 하고 있으며,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서부터 약으로 사용되어 온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어, 기침을 멈추며 가래를 삭이는데 사용되며 화농성질환에 염증을 없애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편도선염, 인후통, 축농증, 중이염, 치조농양, 치질등 붓고 고름이 생기는 증상에도 사용되어 진다¹⁵⁾. 민간요법으로 딸꾹질에 도라지 즙을 한 번에 한두 숟가락씩 하루에 세 번 빈속에 먹으며¹⁸⁾ 위산과다의 위염에 백도라지와 생강을 다려서 마신다¹⁹⁾.

시금치의 생약명은 파채(菠菜), 적근채(赤根菜)라고 하며, 전초를 사용하며 유기산으로 수산(蓆酸, oxalic acid), 사과산, 구연산, 아이오딘(옥소) 및 비타민 C가 채소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 있으며 또한 카로틴, 비타민A, 비타민 B2, 당질, 단백질, 칼륨, 칼슘, 인 등의 영양소도 들어 있어 눈의 피로나 시력감퇴 감기 예방, 골다공증, 철분과 엽산은 빈혈예방에도 유효하여²⁴⁾²⁵⁾²⁶⁾. 민간요법으로 고혈압, 치질, 변비, 통풍등에 사용한다¹⁰⁾.

무우는 한자어로 나복(蘿蔔)이라고 하며 뿌리의 빛깔이 흰색·검정색·붉은색 등 다양하여 비타민 C의 함량이 20~25mg이나 되어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약 94%, 단백질 1.1%, 지방 0.1%, 탄수화물 4.2%, 섬유질 0.7%가 들어 있다. 무우에 있는 독특하게 쏘는 맛 성분은 무우에 함유된 티오글루코사이드가 잘리거나 세포가 파괴되었을 때 자체 내에 있는 글루코사이드아제라는 효소에 의하여 티오시아네이트와 이소티오시아네이트로 분리되며 독특한 향과 맛을 나타내고 무즙에는 디아스타아제라는 효소가 있어 소화를 촉진시키기도 하며²⁴⁾²⁷⁾ 민간요법으로 무즙을 내어 꿀을 섞어 두면 매운 맛이 줄어들는데 감기에 이것을 먹는다¹⁵⁾²⁸⁾.

콩나물의 생약명으로 대두황(大豆黃), 두아채(豆芽菜)라고도 부르며 단백질과 지방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B1, B2,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비타민 C)의 함유량도 높아 영양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며 발아기간 중 성분의 변화는 전반적으로 소당류는 급속히 감소하나 섬유질은 증가하고 단백질은 약간 감소하나 아미노산, 펩타이드(peptides) 등 비단백태질소가 증가한다¹³⁾²⁹⁾³⁰⁾³¹⁾. 콩나물의 섭취는 당뇨병 치료 및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³⁰⁾ 이뇨, 해열, 진정, 혈압강하 등을 다스린다³²⁾. 콩나물은 비타민 C가 풍부하여 감기나 몸살에 효과 있다고 하였고 옛에 콩나물을 삭혀서 국물을 마시면 오랜 기침에 효과가 있으며 그 외 항암작용³³⁾, 아미노산이 많으며 간장의 독소를 배설시키는 작용이 있으며¹⁵⁾ ³⁴⁾ 콩나물속의 아스파라긴산은 음주 후 간의 피로를 풀어주고, 간 기능이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³⁵⁾.

가지는 생약명으로 가자, 낙소, 곤륜관이며 성분으로 칼륨, 리고넬린(Trigonellin), 스타치드린(stachydrine), 콜린(choline) 등이 들어 있어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이뇨작용도 하며 단맛이 나고 찬 성질이 있다. 주로 피부의 염증, 유선염, 종기, 피부궤양, 대변 출혈에도 쓰이며 가지는 나물이나 전, 김치 등 식품으로 열매가 이용되고 약재로 사용된 잎, 줄기, 뿌리등은 해열, 진통, 소염작용이 있어 치료제로도 쓰이고 이 밖에 갈증을 그치게 하고 살충작용도 한다³⁶⁾³⁷⁾. 민간요법으로 요통에 가지 꼭지와 잎을 말려서 재가 되지 않을 정도로 까맣게 태워서 가루 낸 것을 한번에 7~8g씩 술 한 잔에 타서 하루에 두세 번 식사 30분전에 먹고 물에 끓여서 편도선염에 마신다. 가지의 잎과 가지를 고아서 엷처럼 되면 화상에 바른다. 가지에 프로테아제 저해 물질이 있는데, 그 화합물은 발암성 물질이 되는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²¹⁾²⁷⁾.

미나리는 생약명으로 수근, 채근, 근채라고 하며 신장을 보(補)하고 황달을 없애며, 출혈을 멈추게 하며 피를 맑게 하는 식품으로 빈혈예방, 고혈압, 동맥경화, 혈액순환에 좋으며 간장 질환에 생즙을 복용하고 성분으로는 비타민 A, B2, B1, C 및 수분이 풍부하고 알칼리성 식품으로 Ca, P, Fe등의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 북어 국에 미나리를 넣어서 먹으면 해독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²¹⁾. 미나리 프락토올리고당 발효액의 간암세포 성장 억제효능을 확인하였으며²⁹⁾ 민간요법으로 연탄가스 중독이나 이로 인한 후유증에도 사용하며 폐렴으로 열이 날 때 즙을 내어 마시고 구토, 코가 막히면서 몸에 열이 나거나 중풍으로 머리에 열이 나는데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 설사와 황달병에도 쓰며 온몸이 부으면서 소변이 잘 안 나올 때 미나리 전초 달인 물 100ml를 하루에

세 번 식전에 약 5일간 마시고 변비에 발미나리를 먹는다.¹⁸⁾¹⁹⁾³⁵⁾

고구마대는 섬유질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고구마 줄기의 자주색 껍질에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 폴리페놀과 플라보이드가 함유되어 있어 세포 손상과 염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⁴⁰⁾.

숙주는 녹두의 싹을 낸 것으로 녹두는 아랫배나 손발이 찢 때 생즙을 내어 계속 장복하고 당뇨, 산후 부종, 복통, 설사, 해독 해열, 여드름에 사용된다¹⁹⁾.

오이는 생약명으로 호과, 황과라고 하며 박과에 속하는 1년초로 비타민C, 수분, 칼륨함량이 높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체내 나트륨을 많이 배설되는 효과가 있으며 민간요법으로 이뇨작용이 뛰어나 과음 후 오이즙을 마시면 숙취가 제거되고 몸도 가벼워져서 엽록소와 비타민C, 차가운 성분이 강해 땀띠나 화상에 오이즙을 바르면 효과가 높다. 감기에 의한 부종시 오이덩굴을 달여 먹으면 잘 나으며 줄기를 잘라서 나오는 물로 땀띠에 바르면 효과가 있으며 오이덩굴액즙은 피부에 작용하여 윤기를 나게 한다²¹⁾²⁷⁾³⁸⁾.

호박은 수분을 80~90%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당분은 소화흡수가 잘되므로 위장이 약하고, 마른사람, 회복기 환자에게 좋으며 또한 비타민 A, B, C가 포함하고 있으며 늙은 호박에는 비타민B1, B2, C, E 등이 풍부해 면역력을 길러줘 감기예방에 도움이 되고 호박의 비타민C는 가열해도 잘 파괴 되지 않는다³⁵⁾. 민간요법으로 화상에 호박덩굴을 찢어서 바르며¹⁹⁾ 강장, 야맹증등에 약으로 쓰인다. 가래 기침, 이뇨, 부중에 사용되고 신장에 의한 문제가 있는 사람의 경우 이뇨작용을 통해 부종을 줄이지만 임신으로 인한 부종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³⁵⁾.

무청에 함유된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은 혈액순환을 통해 통증을 없애주며 강력한 항균작용을 해서 관절염에 효과가 있으며 무청을 우려 낸 물에 몸을 담그면 무릎에 쌓인 피로를 풀어 몸을 가볍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³⁵⁾.

토란대는 생약명으로 토련이라 하며 당질이 17%정도 함유되어 있으며 대부분 전분이다. 단백질이 약 22% 함유되어 있고 수산석회가 함유되어 있어 이는 뱃속의 열을 내리고, 위와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며, 변비 완화에 효과 있다. 민간요법으로 종기, 부스럼, 버짐, 독충에 쏘였을 때 토란줄기 즙을

바르며 치통이 심해 볼이 부었을 때 생강과 토란 간 것을 바르면 잘 낫는다고 하였으며²¹⁾ 토란잎을 소금을 넣고 찢어서 즙을 뱀이나 독한 벌레에게 쓰이거나 물렸을 때 바른다¹⁸⁾¹⁹⁾. 어깨 결림, 편도선염, 목의 통증, 유선염, 화상, 기관지염에 사용되며²⁷⁾ 토란의 미끈거리는 무틴성분은 체내에서 신장을 튼튼하게 하고 방광의 염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³⁵⁾.

배추는 생약명으로 백채라고 하며 탄수화물, 비타민C, 염소, 소다, 유산이 들어 있고 맛이 달며 따뜻하고 독이 없고 비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불량, 변비, 해열, 종기, 숙취해소에 좋다. 민간요법으로 숙취해소, 탈모에 배추씨를 이용한다³⁸⁾.

취나물은 생약명으로 동풍채, 나물취라고 하며 칼륨 함량이 높은 알칼리성 식품으로 맛은 달고 성질이 차고 전초에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정유가 있고 뿌리에 쿠마린, 사포닌, 알칼로이드가 있다. 민간요법으로 황달, 간염, 해소, 소화장애, 타박상, 뱀에 물린데, 두통, 어지럼증 등의 치료에 오래 전부터 이용되어 왔으며³⁹⁾ 성질이 따뜻해 혈액순환 촉진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만성기관지염이나 목이 쉬었을 때 또는 목 근육이 뭉쳐서 나타나는 두통에 꾸준히 먹는다³⁵⁾. 참나물은 민간요법으로 해열, 고혈압, 중풍을 예방, 신경통에 사용하며³⁷⁾ 박나물은 당질, 단백질, 칼슘이 많으며 미량의 비타민류를 함유하고 있어 영양 유지와 비만 해소에 도움이 된다. 박은 소갈증, 이뇨효과에 좋다³⁷⁾.

고비는 생약명으로 구자궤, 구척, 자기, 고비나물이라고 하며 뿌리줄기를 감기로 인한 발열과 피부 발진에 약으로 쓰고 기생충 제거, 지혈효과, 민간요법에서 봄과 여름에 말려서 줄기와 잎은 인후통에 사용하고 뿌리는 이뇨제로 사용하며 우려낸 물은 수시로 마시면 유행성 감기 예방에 좋으며 맛이 쓰고 달며 성질은 따뜻하여 강장, 이뇨, 해열, 지혈, 최유, 구충, 빈혈약으로 활용되며³⁹⁾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이거나 질병, 노쇠로 늘 피로를 느끼고 의욕이 없거나 신경통에 고비 뿌리를 달여서 장복한다¹⁹⁾.

비름은 성질이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며 눈을 밝게 하고, 대소변을 통하게 한다³⁷⁾.

V. 결론

본 논문에서는 설문지를 통해 제사에 사용하는 19가지 나물에 관한 문항과 6가지 식물류 양념 재료 중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에 관한 문항,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 중 민간요법의 사용 여부와 효과 여부와 사용 범위에 관한 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여 수집된 자료를 SPSS 18.0 통계프로그램(SPSS I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사에 사용되는 나물은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순서 이었고, 나물의 수는 4가지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는 60.7% 이었으며 사용되는 나물의 삼색 사용 여부의 경우 사용 한다가 68.7% 이었다. 또한 제사에 사용되지 않는 재료와 이유를 보면 마늘과 생강은 냄새 때문이 각각 13.3%, 14.2% 이었고, 고춧가루, 양파, 파는 전통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다. 민간요법으로 사용한 제사 나물과 민간요법 효과를 보면 고사리 97.2%를 사용하였고, 24.2%가 효과가 있었다. 도라지는 각각 99.1%, 77.3%, 시금치 97.2%, 27.5%의 순서로 되었다.

제사나물이 민간요법으로 향암, 심혈관, 간 관련 질환, 감기, 변비, 당뇨, 기관지, 숙취해소, 해열 등에 활용 되었다.

향후연구로는 지방마다 제사에 대한 절차와 제사 음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의 한계성을 극복하는 조사가 이루어 져야하며, 민간요법의 활용에 대한 효과는 의학적 검사를 토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1) 박경란, “한국제례문화의 지역적 특성 비교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2001.
- (2) 윤숙경, “안동지역의 불천위제례(不遷位祭禮)와 제수”, 韓國食生活 文化學會誌 Vol.11 No.2, 1996.
- (3) 장성현, “제례음식과 의식에 관한 인지도 조사 연구 : 경기도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조리학 전공), 2003.
- (4) 심준보, “佛典에 나타난 五辛菜戒 研究”, 동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5) 정현숙, “정신과학과 음식”, 한국정신과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6 173-177(5쪽), 2002.
- (6) 윤서석, “식생활문화의 역사”, 신광출판사, p28, 1999.
- (7) 신영옥, “민간 체험으로 전래된 단방 요법”, 한국노년학연구회, Vol.3 No.1, 1994.
- (8) 백춘기, “지리산권 민간요법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9) 이명화, “KB 구강암세포에서 *Angelica decursiva* 추출물의 세포사멸활성”,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10) 임용섭, “菜蔬類의 藥理的 特性和 民間療法에 關한 歷史的 考察” 서울시立大學校, 석사학위 논문, 2005.
- (11) 주희, “가례(家禮)”, 규장각도서, 1959.
- (12) 이의조, “가례증해(家禮增解)”, 규장각도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소, 1997.
- (13) 웅진씽크빅 편집부, “명절날 때때음식”, 웅진씽크빅 무크, 2002.
- (14) 시공사 편집부, “이세상 모든요리 301”, 시공사, 2006.
- (15) 홍문화, “홍문화박사의 건강교실”, 청림출판, 1988.
- (16) 한국문화상징사전편찬회, “한국문화상징사전2”, 두산동아, 1995.
- (17) 장준근, “몸에 좋은 산야초”, (주)빅서스, 2009.

- (18) 동의학연구소편, “한국의 민간요법”, 김영찬 감수, 일송, 1998.
- (19) 권혁세, “풀이 만병을 이긴다”. 하나로, 1997.
- (20) 韓國生藥學教授協議會, “本草學”, 아카데미서적, 2006.
- (21) 김미리·송효남 “현대인의 음식보감”, 교문사, 2004.
- (22) 김재용, “도라지 사포닌의 인체암세포 증식억제 및 고지방식이 마우스에서의 비만 개선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 (23) 윤영희, “도라지 추출물이 차로 이용되었을 때 초기 감기에 대한 면역력 상승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24) 표현구, “채소원예각론”, 향문사, 1982.
- (25) 류태중, 1982. “식품학”, 문운당,
- (26) 이창복, “대한식물도감”, 향문사 1982.
- (27) 이종문, 신재용·송효정감수 알기쉽게 풀어 쓴 동의보감, 국일미디어, 1993.
- (28) 정유선, “무우가 *Helicobacter Pylori*에 의한 위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 2003.
- (29) 김민주·양선아·박정현·김혁일·이삼빈, “미나리 프락토올리고당 발효액의 발효 기간에 따른 품질특성 및 간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한국식품 과학회지, 2011.
- (30) 김정인·강민정·배세연,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 있어서 콩나물 메탄올 추출물의 혈당강하효과”,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003.
- (31) 이승욱·이효정·유미희·임효권·이인선, “울릉도 산채류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및 황산화 활성”, 한국식품과학회지 37(2), p.233-240, 2005.
- (32) 정민성, “영양가 높은 콩나물”, 새가정학술지, Vol.421, 1992.
- (33) 김석동·김수희·홍은희, “콩나물의 성분과 그 영양학적 의미”, 韓國콩 研究會誌 Vol.10 No.1, 1993.
- (34) 이연화, “콩나물의 生長과 Vitamin C 生成에 미치는 Gibberellin의 效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4

- (35) 김봉찬, “약이 되는 음식”, 삼성, 2009.
- (36) 김재길, “(원색)천연약물대사전”, 남산당, 1992.
- (37)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웅진, 1991.
- (38) 임용섭, “菜蔬類의 藥理的 特性과 民間療法에 關한 歷史的 考察”,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39) 조식제,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아카데미북, 2012.
- (40) 곽충실·이근중·장진희·박준희·조지현·박지호·김경미·이미숙, “고구마잎과 고구마줄기 에탄올 추출물의 *in vitro* 항산화, 항알레르기 및 항염증효과”, 2013.

저작물 이용 허락서

| | | | | | |
|------|--|--------|---------------|--------|----|
| 학 과 | 대체의학과 | 학 번 | 20138623 | 과 정 | 석사 |
| 성 명 | 이 명 희 | 李 明 姬 | Lee Myung Hee | | |
| 주 소 |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 | | | |
| 연락처 | usjaki@hanmail.net | | | | |
| 논문제목 | 광주광역시 일부 주민들이 인식하는 제사 때 사용하는 나물과 민간요법과의 관계 | | | | |
|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ild Greens Used for Memorial Services and Folk Remedy Greens as Perceived by Some People in Gwangju | | | | |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 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과 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 이용의 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 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0) 반대()

2014 년 2 월

저작자 : 이 명 희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

